

명종 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처음으로 강의하기 시작한 사연

선조가 명종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해가 1568년이다. 선조는 조선왕조에서 방계로 왕위를 계승한 최초의 군왕이다. 선조가 명종을 이어 후사로 책정되어 가는 과정은 <연려실기술>의 기록을 참조하면 을축년(1565) 무렵으로 보인다.

을축년(1565) 9월에 명종이 편찮으시었다. 그 당시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이미 죽었으나 국본(國本)이 정해지지 않아, 인심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므로 영의정 이준경(李浚慶) 등이 미리 국본을 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으니, <동각잡기>에 이르기를, “이준경이 약방 제조 심통원(沈通源)과 의논하여 약방에서 중전께 아뢰어 미리 계사(繼嗣)를 정하여 인심을 안정시킬 것을 청하였다.” 하였다. 명종의 환후가 위독하자, 중전이 봉합편지 한 통을 대신 처소에 내리시고 대신에게만 보게 하셨는데, 그중에 하성군(河城君)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석담일기>에, ‘하성군’은 선조의 봉군한 군호(君號)라 하였다.

을축년(1565)에 명종의 환후가 위독하게 되자, 후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하게 되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이준경 심통원 등이 중전에게 계사를 정할 것을 간청했으며, 인순왕후가 명종의 뜻을 헤아려 훗날 선조가 되는 하성군을 계사로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종이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사를 논의하는 것은 조정의 대신이나 남은 왕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군왕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다.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후사(세자)를 책봉하는 문제로 추방되거나 비명에 간 신하들이 무수하다. 가까운 예로 선조 연간에 정철이 기축옥사의 위관을 담당하게 된 데에는 선조의 적극적인 후원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기축옥사 후에 선조가 태도를 일변하여 정철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후사를 세우는 건저문제였다.

<연려실기술>에서는 명종의 환후가 조금 나아진 후에 명종의 계사를 신하들이 논의했음을 실토하고 혜량을 간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진덕수(陳德秀)의 <대학연의>가 등장한다.

그때는 온 나라가 모두 경황이 없었는데, 당시의 판서 민기(閔箕)가 수상 이준경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왕의 환후가 오래가는데 대감은 나라를 맡고 있으면서 어찌 사직(社稷)을 근심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니, 이준경이 크게 깨닫고, 계사를 정할 것을 들어가서 청하였으나, 임금의 말은 벌써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인순왕후(仁順王后)가, “순회세자가 돌아간 후에 왕이 덕흥군의 셋째 아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참 임금 될 사람이 이미 났으니, 내 자식은 의당 죽을 것이다.’고 말씀하였다.” 하니 이준경이, “천의(天意)가 거기에 계십니다.” 하고, 마침내 장수에게 명하여 선조의 집을 호의하게 하였으나 명종은 모르셨다. 병이 조금 차도가 있

어 경연을 열자 민기가 자청하여 특진관(特進官)으로 입시하였고, 이준경은 임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성상께서 편찮으실 때, 온 나라가 모두 국본으로 두려워하며 근심하므로, 신은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종사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의 안색이 좋지 않아지시며, “내 병이 어찌 죽게까지 되었다고 대신이 미리 그런 짓을 하였단 말이오.” 하니, 민기가 소매 속에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꺼내 들고 ‘국본 정한다’는 장(章)을 보이며, “대신이 나라 일을 위하여 어찌 몸을 돌보겠나이까.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어지럽고 망하는 것은 항상 계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였다. 명종이 그 글을 자세히 보더니 비로소 낫빛이 화평해지며, “수상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하였으니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 할 만하오.” 하고, 이내 명하여 경연에서 <대학연의>를 강의하게 하고, 민기에게 표범 가죽 옷을 하사하였으니, <대학연의>를 강의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선조가 등극한 뒤에 민기가 제일 먼저 정승이 되었다.

민기가 명종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건저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한 내용이 생생하게 잘 드러난 기록이다. 특히 민기가 소매에서 <대학연의>를 꺼내들고 ‘국본 정한다’는 장의 내용을 설파한 방법이 주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종이 <대학연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조선왕조의 경연에서 <대학연의>를 강의하기 시작한다.

원래 유학은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는 학문이다. 유학에서는 이러한 학문적 이념을 ‘內聖外王’, ‘修己治人’, ‘成己成物’로 표현한다. 주자학도 예외가 아니다. 주자의 이러한 학문적 특징은 여조겸과 함께 편찬한 <근사록>의 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사록> 통행 본 목차는 후대에 수정되기는 했지만, 원래 목차는 수기와 치인을 내용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유학에서 수기와 치인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 무엇인가 바로 <대학>이다. <예기>의 한 편이었던 <대학>이 송대에 이르러 유학자들로부터 본격적인 주목을 받는다. 왕안석은 <광대학(廣大學)>을 편찬하였고, 이정(二程)도 대학을 중시했다. 이정이 대학을 강조한 이유는 당연히 <대학>이 유학의 체계적인 수행방법뿐만 아니라 도덕과 경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에서 도덕과 경제의 문제는 내성외왕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주자는 선현들의 업적을 이어 받아 명실상부한 제왕학의 교재로서 <대학장구>를 완성하였다.

주자학은 남송시대에 한때 위학으로 간주되어져 정치권의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주자학이 관학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배경에는 진덕수의 공을 무시할 수 없다. 그가 남송 이종(理宗)에게 <대학>을 강연하면서 지은 책이 바로 <대학연의(大學衍義)>다. <대학연의>라는 말은 <대학>의 뜻을 넓혀 나간다는 의미이다.

진덕수는 매 조목마다 고대경전 및 사적에서 그 근거를 확보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명말 유학자인 정신(丁辛)이 “니산(尼山)은 <대학>으로 육경을 연(衍)하였다면, 선생은 오히려 육경으로 <대학>을 연(衍)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는 경연에서 <대학연의>와 더불어 명나라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를 강하였다. 훗날 정조가 진덕수의 <대학연의>와 구준의 <대학연의보>에서 가장 절실한 글을 선별하여 <대학유의(大學類義)>를 만들게 된다. 정조는 이 책의 제(題)에서 “임금이 이 글을 읽으면 태평의 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신하가 이 글을 읽으면 참찬(參贊)의 공(功)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이름을 <대학유의>라 명명하였다.”라고 하면서 위정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강조하였다.